한국문학논총 제 31 집(2002.10) pp. 279~308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 나타난 자기 정체성의 제양상

심 원 섭*

차 례

1. 서론
2. 총련과 재일본 조선문학 예술가 동맹의 활동지침
3. 공화국의 재외공민과 수령의 자녀로서의 죄의식
4. 민족교육을 통한 '재일'의 극복 문제
5. 피안으로서의 조국과 혁명 대상으로서의 조국
6. 결론

1. 서론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재외 한국인 문학 중에서 재일 한국인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타 지역의 한국인 문학에 비해 일본 문학의 다양성 확대 내지 문제의식의 심화라는 면에서 뚜렷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 근현대 한일관계사의 민감한 사안들이 깊이 얽혀 있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문학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 영역을 살펴보면 특수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일 한국인 문학 중에는 일본어로 창작

* 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대우교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을 하는 집단과 한국어로 창작을 하는 집단이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전자, 특히 유명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 문단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작가 및 작품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 가능한 현상이긴 하나, 한국문학이 재외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상을 통전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관점에 서게 되면, 한국어로 창작되어 온 재일 문학을 한국문학이 외면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어로 작품을 생산 소비해 온 이들의 대부분이 이른바 '조총련'(재일조선인총련합)의 하부조직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동'으로 표기)[1] 소속 작가·시인들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문학사 속에서 북한문학이 금기영역이 되어 온 것과 같은 현상이 이 방면에서도 재현되어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학이, 통일한국문학사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조총련'의 문학 역시도 연구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이 영역에 대한 한국 측의 연구는, 소설 분야에 대한 개관 외에는 전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2] 본고에서는 위의 작업에 뒤이어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문예동 소속 시인들이 조선어로 쓴 작품들(이하 '재일 조선인 시문학'으로 약칭함)의 중심적 특질을, 재일 조선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알려져 온 자기 '정체성'이란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3]

---

1) '문예동'이란 용어는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규약」 1장 1조에 명기되어 있는 공식적인 약칭이다.

2) 졸고, 「재일 동포의 문학예술의 현황과 창작방향」, 설성경·김영민·최유찬·양문규·심원섭, 『통일 한국문학의 진로와 세계화 방안 연구(Ⅲ)』(『동방학지』 107집, 2000.3) pp.63~87. 또는 동저자, 『세계속의 한국문학』 (새미, 2002.1) pp.484~505 참조.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재일 한국인 문학'이라는 용어는 '일본어로 씌어진 재일 한국인 문학'을, '재일 조선인'이라는 용어는 총련계 조선인(총련계 사회에서는 '한국' 대신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아울러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도 이 원칙에 준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특질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통사적인 기술 방법 역시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기초적인 서지 정리 작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총련과 재일본 조선인 문학예술가 동맹(문예동)의 활동지침

일본어로 창작된 재일 한국인 문학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고찰해 보면, 민족적 정체성의 자각 문제와 관련하여 경계선이 그어지는 지점이 있다. 세대별로 본다면, 1세대 및 제2세대의 일부까지,[4]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일본 패전 후 1970년 전후까지에 이르는 시기가 그것이다.[5] 이 시기는 재일 한국인 작가들 가운데에 뚜렷한 역사의식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소수자의 대항의식으로서의 '민족의식'이 강력하게 존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의 '재일'의 정체성의 핵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시되고 있다.[6] 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 일본사회와의 공생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 '민족' 담론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3,4세대 재일 한국인 및 문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 재일 한국인들의 실생활 문화 속에서 순수한 한국(조선)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진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재일 조선인 문학 역시도 시기별 차이점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나,[7] 전체적으로 보자면 재일 한국인문학의 경우와 같은 질적인 변화상은 확인해

업조차도 미비된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5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재일 조선인 시문학 전체에 '자기 정체성'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주제적 기술방법을 택했다.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경우 보통은 '민족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 용어는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국적'이나 '혈통' '문화' '역사' 등 다양한 하부 요인들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 모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사용을 피했다.

4)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 연구』(월인, 2000.6) p.11.

5) 윤건차, 「21세기를 향한 재일의 아이덴티티」, 강덕상 · 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대출판부, 1999) p.289 참조.

6) 윤건차, 위의 글, 같은 쪽.

7) 가령 김학렬(조선대 교수)은 재일 조선인 문학이 '1950년대, 60년대는 문예의 주체 역량이 형성 · 정비되고 점차 발전된 시기, 1970년대는 조국통일투쟁의 앙양기, 1980년대는 모든 면에서의 량적 확대 · 비약의 시대, 90년대는 내외의 정세가 매우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련의 시기, 력사적 전환기, 세대교체의 시기'를 거쳐왔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좌담회 - 문예동 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문학예술』 109호(1999.6) pp.24~25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말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재일 조선인 문학이 지속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도 같다. 그 이유는 역시 재일 조선인 문학의 원천지인 문예동이 총련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적인 문학운동을 그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총련의 성격과 그 하부조직인 문예동의 창작방침 등을 확인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총련 측에서 제시한 '총련의 성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총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라는 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그리고 총련의 활동원칙과 관련해서는 주체의 원칙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우리 말과 글을 가지고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8] 이외에 문예동의 규약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6조 문예동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가입한다
> 제10조 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ㄴ. 맹원은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문예동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ㄹ. 맹원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을 고수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및 총련의 애국사업을 주제로 하는 창작과 연주사업을 하여야 한다.[9]

이상을 보면 문예동이 총련의 하부단체이며, 문예동에 소속된 작가 시인들은 총련의 활동 지침및 문예동의 규약에 따라 창작활동을 할 것이 요구되는 조직적 활동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지침 속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문예정

8) 총련의 성격 및 활동원칙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자료 내용은 앞의 졸고, pp.66~70 참조.
9)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규약(1992. 6.14) 프린트 자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책 내용을 연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일 조선인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문예정책이 추구하는 명제들의 재일 적용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면모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리 밝힌다면, 이러한 문예동의 활동지침은 시와 소설을 비롯한 모든 장르의 재일 조선인 문학 속에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일 조선인 문학이 채택하고 있는 소재나 주제들이 이 원칙들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특징은 형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순 한글로 창작되고 있는 점, 언어가 한결같이 평범한 생활어 위주인 점, 복잡한 구성양식이나 기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주인공들이 모두 역경을 극복해가는 영웅적이고도 고상한 인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 작품의 결말부가 예외없이 상승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총련 문학의 존재방식과 창작지침의 대강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이러한 지침하에 어떻게 구체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는가를 '자기 정체성'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눠 고찰해보기로 한다.

3. 공화국의 해외공민과 수령의 자녀로서의 자의식

위의 창작지침에도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 나타난 재일 조선인의 자기 정체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근거는 재일 조선인들이 공화국(북한)의 해외공민이라는 자의식이다. 그리고 '수령'에 대한 정서적 흠모의 세계가 이에 첨가된다. 두 작품을 보기로 한다.

> 이루었도다 / 공화국 - 우리의 주권 밑에서 / 천지개벽을 이룩했도다 //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배려 밑에 / 수령님 인자하신 사랑밑에서 / 학대와 멸시 벗어던지고 / 만리 이역에서도 푸르른 청춘이 솟아났도다 // … // 공화국 공민의 영예 / 생활 속에 깊이깊이 / 뿌리박은 그때부터 / 피여났도다 / 피끓는 애국의 길에서 / 우리의 삶이 꽃으로 피였도다 // 일본 수도 한복판에 / 우뚝 솟은 조선회관 / 단결된 우리의 힘 여기 보라는듯 / 떳떳하도다! / 공민된 이 자랑 / 기발처럼 하늘높이 펄럭이도다. 1966.9. (남시우, 「공화국공민」 6-12연)[1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봄은 찾아와도 / 봄노래 부르지 못하고 / 슬픔과 피눈물 속에 맺힌 / 숱한 원한 하소연할곳 없어 / 정처없이 떠돌던 재일동포를 /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 총련의 주인으로 이끌어주신 / 아, 위대한 수령님! /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항진성, 「"삼지연"호에 올라」 7연)[11]

각각 60년대, 80년대의 작품이지만 두 작품이 보여주는 모티브 사이에서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런 유형의 모티브들은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서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유형의 작품들에는 내용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으로 점철된 이국생활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 '공화국의 해외공민'이 됨으로써 전기를 맞았다는 점, 그리하여 화자를 비롯한 조선인들은 '총련'의 일꾼, 즉 공화국의 해외일꾼으로서 자긍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종의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티브가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데에는 객관적인 역사적 근거가 있다. 일본 패전 직후부터 북한정권이 조련(재일조선인연합)계 조선인들을 위해 시행한 정치적 배려들, 그리고 조련 조직이 보여준 북한에의 정치적 경도는 재일 조선인사에서 확인되는 가장 초기적인 역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그러나 위와 같은 모티브가 하나의 관행으로서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 자리잡게 된 데는 보다 깊은 현실적 이유가 있다. 김정수의 「생명수」는 바로 이 점을 매우 명료하게 또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전문을 인용한다.

돈입니다 / 산을 넘어 수천리 / 바다를 건너 수만리 / 머나먼 이역에 닿은 돈입니다 // 칼바람 헤치고 / 삭풍을 뚫고 / 아, 서른해 / 서른해를 끊임없이 보내준 돈입니다 // 이 땅이 / 돈 없이는 하루를 못사는 사회라 / 서른해 기나긴 세월 / 백번을 넘도록 끊임없이 또 보내준 소식에 / 감사의 맘 파도처럼 솟구

10) 남시우, 『조국에 드리는 송가』(문예출판사, 1982) pp.54~55.
11) 『종합시집 봄빛 속에서』(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87) p.145.
12) 당시 재일 한국인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었던 조련의 지도자들은 1945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과의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하기 시작한다. 최영호,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한반도 국가형성과정에의 참여」, 강덕상 · 정진성 외, 앞의 책, pp.372~387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치는 저희들이거니 // 전후의 재더미속 / 부모를 잃고 / 한지에 나앉은 어린이의 눈물 / 이 돈속에 생각합니다 // 허리띠를 졸라매고 / 복구의 삽을 든 / 그날의 로동자의 구슬땀 / 이 돈속에 생각합니다 // 나라의 허리는 못폈어도 / 이역동포의 허리는 펴주어야 한다고 / 깊은 밤 오래도록 창가에 서시여 / 이역의 우리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신 수령님 / 아, 수령님의 은정을 생각합니다 // 돈이 없어 / 책을 못찍고 백묵을 못사고 / 돈이 없어 / 동포집을 돌며 끼니를 에운 그날 / 꿈이 아닌가고 정녕 꿈이 아닌가고 / 눈물로 안아본 돈입니다 // 초라한 판자집교실의 / 수모와 멸시 / 말끔히 가시여준 돈입니다 / 일본땅 방방곡곡 / 보란듯이 철근교사 우뚝 세우고 / 공화국기 하늘높이 휘날리인 돈입니다 // 돈입니다 / 어제의 우리를 구원해주고 / 오늘의 우리를 보살펴주며 / 미래의 우리를 안아주는 / 은혜론 태양의 해빛입니다 / 자애로운 향도의 별빛입니다 / 살아 없어서는 안될 / 사랑의 생명수입니다 // 아, 세상에 이역동포는 많아도 / 우리만이, 우리만이 받아안는 돈입니다[13]

위와 같은 사연은 재일 조선인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정책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일 한국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 비해, 김일성 정권은 한국전쟁 후부터 재일 조선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폭적인 정치·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위 작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직결되어 있다. 즉 50년대 후반부터 북한 정권이 재일 조선인 사회에 지원한 막대한 지원금이 그 실질적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다.[14]

'재일'이라는 범주의 존재는 그것 자체가 다수자인 일본과 소수자인 재일 한국인들과의 대타 의식의 생산물이다. 그리고 그 대타의식 밑에는 당연히 그것을 낳게 한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식민지 시대의 체험에 뒤이어 재일 한국인들이 소수집단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치·경제·문화적 차별의 고통과 심리적 고통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즉 일본이라는 다수 집단 속에서 '재일'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자존감을 획득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13) 『종합시집 봄빛속에서』, pp.60~62.

14) 1957년 4월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총련에 1억 2천만엔을 보낸 이래로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1961년에는 5억 5847만엔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을 보냈으며, 이 당시까지 보낸 지원금 액수의 총계는 21억 189만엔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처드 미첼(金容權 역), 『在日朝鮮人の歷史』(彩流社, 東京, 1982), p.173.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문제는 '재일' 체험의 핵심 중의 핵심에 해당하는 현실적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재일'에게 있어서 해방 후로부터 1950년대를 관통하는 시기는, 다수자인 일본측의 조직적인 견제와 차별 밑에서 위와 같은 재일의 핵심 문제들이 역사의 표면에 매우 선명한 형태로 표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15] 바로 이 시기에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조련계 조선인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경제·문화적 자립을 위한 막대한 지원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시와 소설을 막론한 총련 문학 전체의 표면과 이면에서 북한에 대한 위와 같은 은의(恩誼)적 정서가 담긴 내용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재일'의 경도가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서 온 것이며, 그것이 총련계 조선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수령 김일성에 대한 경도는 재일인들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자기 정체성의 한 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령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북한 문학의 구심을 이뤄온 모티브이긴 하나, 이런 양상은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60만 재일동포들에게 가장 /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 고금력사를 두고 / 한나라의 수령이 / 해외동포들에게 이같은 인사말씀 있었으랴! // 수령님의 새해축전 / 한마디 잊을세라 귀전을 가다듬고 / 한자인들 놓칠소냐 종이에 옮기면서 / 심장에 새기면서 / 결의를 다지면서 // 지난해 이 아침 / 예서 수령님의 축전 받들고 / 그이께서 주신 과업 끝내 수행하리라던 / 그때의 다짐 다시 더듬어보느니 // - 공민권 / - 민족교육 / 귀국사업 / 그외 모든 신성한 권리 지키는 길에 / 내 얼마만치 싸웠던가를 (1960년대작) (정화흠 「새해 첫학습날에」, 2-5연)[16]

나) 넘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 우리의 가슴 / 끝없는 행복에 젖어있습니

15) 재일 조선인 역사에서, 패전 직후인 1946년경부터 1955년 총련 결성까지의 시기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동화정책에 맞서서 재일 조선인사회가 치열한 투쟁을 벌인 시기에 해당한다. 오자와 유사쿠(이충호 역),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혜안, 1999.10) Ⅲ,Ⅳ 참조.

16) 『재일조선시선집』(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89.6) pp.38~3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 조국인민들의 / 도높은 영예와 긍지를 싣고 출렁이는 / 저 대동강의 흐름마냥 / 우리는 온몸 / 한없는 영광으로 설레입니다 // 바다먼 이역땅에서 / 어버이 수령님의 품이 그리워 / 아침으로 저녁으로 / 조국하늘을 우러렀거늘…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 자애로우신 손길로 / 그리운 사회주의조국으로 불러주시고 /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 / 다 돌려주십니다 (1975) (김두권, 「어버이 수령님이시여」2-4연)[17]

가) 작품에서는 50, 60년대 재일 조선인 사회와 북한이 정치·경제적 은의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음이 잘 확인됨과 동시에, 총련이 북한의 대 재일조선인 정책을 수행하는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확인된다. 그러나 이 속에는 재일 조선인 사회와 수령이 맺고 있는 또 다른 특수한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화자와 수령과의 관계가 근대적인 조직체에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수령의 교시를 한 자 한 자 받아적고 결의를 다지는 화자(총련 일꾼)의 자세 속에서는 전근대적인 것에 가까운 인간관계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군신(君臣)관계라고 하면 과언이 될는지도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전적인 신뢰와 복종의식이 수반되어 있는, 일종의 충의(忠義)로 엮어진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나) 작품에서는 가) 작품보다도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필치로서 재일 조선인들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수령상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버이로서의 수령'상으로서 제시된다. 말하자면 재일 조선인과 '조국'과의 관계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은의의 관계로, 다시 충의의 관계에서 드디어는 자녀 대 부모 관계와 같은 차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작품은 나) 작품과 같은 정신구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면모를 그 나름의 서정적 진실성과 함께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붉은 용단우에서 / 기다리는 이 마음 / 한없이 설레입니다 / 끝없이 높뜁니다 // 이날 이 순간을 / 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 그 얼마나 바랐습니까 // 발걸음소리 / 온 청사에 울리더니 / 문 앞에서 뚝 멎었습니다 // 온 누리가 해발을 받아 / 은빛 금빛 빛을 뿌립니다 / 산에 들에 새는 우짖고 / 백화가 만발하여

17) 김두권, 『조국, 그 이름 부를 때마다』(문예출판사, 1985) p.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 향기를 뿜습니다 // 아. 어버이 수령님! / 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 눈앞은 흐려져 / 그만 목놓아 나는 울었습니다 // 돌처럼 굳어진 귀가에 / 인자하신 어버이수령님의 / 우렁우렁한 목소리 // - 수고들 했습니다 / 동무들하고 만나니 / 나도 기쁩니다 // 아, 철부지 어린시절부터 / 아버지와 함께 / 그리도 흠모하던 / 민족의 태양, 어버이 수령님 // 오늘 이때까지 / 제가 무엇을 했기에 / 이리도 따뜻이 손을 잡아주시는지… // 그만 목이 메여 / 만세를 부릅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 아, 그 만세소리에 / 꿈을 깰줄이야 / 깨여나서도 / 하염없는 두줄기 눈물 // 잠을 잔 간밤의 어두움이 / 서서히 물러서고 / 노을 비낀 아침이 밝아옵니다 // 진정 어버이 수령님을 만나뵈올 / 꿈아닌 그날이 올듯이 (장진실 「꿈속에서」 전문)[18]

수령의 등장과 더불어 제시되는 '금빛 광채'라든가 자연물들이 뿜어내는 '향기' 등을 고려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화자의 정서 속에 존재하는 수령의 모습이 거의 초월자적인 이미지에 근접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광휘 속에 자애로운 어버이의 이미지가 겹쳐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인간관계는 합리성과 평등성, 기능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인간관계와는 거리가 먼 것임이 분명하다. 근대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는 종교라고 불리는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세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 작품에 나타난 인간관계는, 종교문화의 속성이 흔히 그러한 것처럼, 하나의 매력적인 인격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의사(擬似) 초월적 세계와 그 세계를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신봉하는 신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만하다.[19]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 익숙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특이하게 보일 것임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총련 문학 속에 이러한 정신적 모티브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관계가 그 나름의 강력한 정서적 진실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현상이 하나의 심리적 실재로서 재일 조선인 사회, 혹은 재일 조선인 문인들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혹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18) 『종합시집 봄빛속에서』, pp.52~54.

19) 추상적인 관념체계만으로 종교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종교적 진리가 하나의 문화체제로서 존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인간세계에 매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격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스즈키 다이세츠(신현숙 역), 『선이란 무엇인가』(을유문화사, 1986) p.209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재일 조선인 문학 속에 간직되어 온 자기 정체성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 나타난 자기 정체성은 근대적인 의미의 정치 차원, 혹은 국적 차원에서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재일 조선인들은 현실 차원에서는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정치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정체성은, 자애로운 군주의 신하 또는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자의식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육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정치적 차원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어진 군주 혹은 어버이 수령이라는 구체적 인격에 의해 그 정서적 활력과 성실성이 강화되는 측면을 수반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재일 조선인들이 자기 정체성 속에 매우 특수한 정신구조 -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 의식과 전근대적인 군신(君臣)의식, 그리고 의사종교적 정서가 융합된 가족의식이 한데 혼합되어 있는 - 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민족교육을 통한 '재일'의 극복 문제

생활상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그 사실의 고백을 미루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났을 때 사회적 삶의 영위에 있어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만큼, '재일'의 고통을 생활사적 차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는 있기 어려울 것이다. 마치 범죄자처럼 자신이 조선인임이 '탄로'날 것에 대해 공포감과 지속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또한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재일의 문제가 집단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의 근저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문제는 그들이 재일 속에서 얻은 심리적 상처와 공포, 자기 분열성을 2세에게 가정폭력을 통해 전수시키면서 문제를 확대재생산해 가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가중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재일 문학의 선구격이라 할 수 있는 김사량의 「빛속으로」에서부터 비롯하여 이후 창작된 수많은 재일 한국인문학 작품 속에서 중심적인 과제로서 다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재일 작가들의 대처 방법은 다양하나, 재일 조선인 문학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 중에서도 매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조선인임을 집단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책을 공동체적 노력을 통해 실현해 가는 한편으로 내면적 차원에서는 완전자에 가까운 인격을 지닌 수령을 그 정서의 구심 속에 모시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본국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임을 공표하고 본국의 정치적 목표를 외국에서 실현해가는 일꾼으로서의 자아상을 신장해 간다는 점에서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남성적이고 정면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방법 이외에 재일의 고통에 대처해가는 총련 문학의 방법과 그 특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예로서 민족교육 사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조련 및 총련의 역사와도 그 궤를 같이 할 만큼, 재일 조선인 사회가 최대의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기도 했던 민족교육 사업은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서 위의 공민의식이나 수령 예찬시와 더불어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시적 소재이기도 하다. 다음 작품을 보기로 한다.

> 여기는 내가 배운 곳 / 여기는 너희들이 자라는 보금자리 / 40년을 하루로 주름잡듯이 / 세월의 층계를 뛰어넘어온 / 나의 모교여 // 위대한 수령님 계시기에 / 차디찬 이국에서도 / 수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 어엿한 일군들이 자라나는 우리 학교 // 4.24의 간고한 시련도 뚫고 / <외국인학교법안> 짓부시며 / 승리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 장하구나 우리의 학교 / 용쿠나 우리 민족교육 // 언제면 새 교사가 서는가고 / 입만 떼면 묻던 너희들 / 오늘은 눈부시게 달려오는 새 교실에서 / 눈동자 별빛같이 반짝이며 / 마음껏 배우며 노래를 부르누나 // 나라 없는 망국노의 설음 /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 현해탄 물결우에 피눈물 뿌린 /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원한 몰라도 / 잊지 말라, 아이들아 / 이 학교에 깊이 스민 /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물과 피땀만은 // 얼마나 자랑차냐 /오늘도 새 동무가 교문 열고 들어오는구나 / 웃음 가득, 기쁨 가득 / 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희망을 안고서 / 너희들을 찾아서 / 같이 배우자고… // 여기는 내가 배운 곳 / 여기는 너희들이 자라는 보금자리 / 배우고 또 배워 / 조선의 미래로 나래쳐라 / 어버이 수령님께 충실한 / 조선의 참된 역군으로 자라라 (량광우 「나의 모교」 전문)[20]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재일 조선인사는 사실상 민족교육의 부침의 역사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의 민족교육의 기초 수립기를 거쳐 1948년 '4.24'부터 1955년 총련 결성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고난기를 거친 이후 70년대까지 지속적인 발전기를 걸어 온 민족교육의 역사의 대강이 위의 시작품 속에는 암시되어 있다.[21] 1세대로 짐작되는 화자는 식민지시대와 해방 후 시기를 거쳐 온 자신들의 고난에 찬 생활사와 동화교육 정책에 저항하면서 일궈 온 민족교육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고난과 투쟁의 열매로 이룩된 오늘의 민족교육의 성과를 아이들에게서 보면서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위 작품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족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다음 작품은 보다 미시적인 방법으로 민족교육의 현장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방긋 웃었어요, 애랑 동무가 / 처음으로 웃었어요, 편입생 동무가 / <오이, 아이, 이마, 우유…> / 다 읽을 수 있었다고 / 우리말 공부가 재미난다고 // 어느새 외웠는지 동무들을 가리키며 / <김인성, 남창일, 강성희> …/ 그래그래 맞았다 맞았어 / 순간 터지는 박수소리, 박수소리…//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해주는 / 따사로운 교실안은 웃음꽃이 만발하고 / 애랑동무 싸고앉아 노래소리 울려퍼지는데 // 뜻밖에도 애랑동무 눈물이 글썽 / 모두들 놀래며 / 박수소리 멈추고 노래소리 꺼졌어요 // 어째설가? / 모두들 걱정하며 침묵이 흘렀어요 / 옳지옳지 장난말에 마음이 걸렸지? / 모두들 장난꾸러기 창희를 쏘아보는데 //

---

20) 『종합시집 봄빛속에서』, pp.149~151.

21) 1948년 1월 일본정부는 「조선인학교 설립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소위 문부성 통달을 통해 조선인학교의 폐쇄정책을 시행하고 자녀들을 일본학교에 취학시키는 전형적인 동화교육 정책을 미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맞선 재일 조선인 사회는 4월 24일 코오베현에서 그 정책의 무효화 선언을 얻어내는 부분적 승리를 얻어낸다. 26일에는 1만 3천 여명이 모인 오사카 시위 중 경찰측의 발포로 김태일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시기 전후의 일련의 사태를 재일 조선인 교육사에서는 '한신교육사건'이라고 보른다. 이를 포함한 이 시기의 민족교육 역사 관련 사항은 오자와 유사쿠(이충호 역),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혜안, 1999), p.23 및 214~233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애랑동무 하는 소리 /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뻐서 울어요…> / 일본학교에선 / <죠-센>소리에 고개를 숙였다고 / 마음껏 한번도 웃어본적 없었다고 // 분단동무들 눈이 휘둥그래지며 / 애랑동무 와락 안고 하는 소리 / <그래, 그래 잘 왔어 / 우리 학교가 제일이지 정말 좋구나!> // 편입생 도와줄 한결같은 마음 안고 / 노래는 계속되고 / 웃음판이 벌어지는데 // 창너머 애랑동무 어머니 보고있을줄 / 남몰래 눈물 흘리고있을줄 / 우리는 몰랐어요 / 아무도 몰랐어요. (류계선「아무도 몰랐어요」 전문)[22]

일본 사회에의 적응을 위해 일본학교를 선택해 다니다가 조선학교로 전학해 온 학생이 조선어 학습 체험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애랑'의 대사 처리에 다소 감상적인 데가 있기는 하나, 일본학교에서의 집단차별 체험 속에서 상처를 받아온 조선 아동이 조선어 학습,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또래집단의 애정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작업을 시작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예로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가벼운 삽화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중 상황의 배후에서는 재일 조선인 부모와 아동들의 깊은 상처를 알고 있는 인간의 존재가 느껴진다.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통적인 동화정책과 아이들의 사고방식에까지 침투한 민간 차원의 집단차별에 대한 재일 조선인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 제도 속에서 희생당해 온 일본학교 취학 아동 및 그 부모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재일 조선인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재일 조선인 아동은 일본에 동화되는 방식의 교육 아래 성장할 경우 지속적인 상처와 인격적 왜곡만이 초래될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일 조선인 아동은 조선의 언어 학습과 그것의 당당한 사용을 통해서만, 또한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또래집단 속에서만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것은 재일의 고통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매우 남성적이고 씩씩한 면모를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치마저고리 / 기어이 입고 다니겠어요 / 언니들처럼 // 아무리 깡패들

22) 『재일조선시인시집 따르는 한마음』(문예출판사, 1992) pp.180~18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날뛰어도 / 우리모두 어엿한 조선의 딸답게 / 꽃같이 고운 우리의 치마저고리 / 당당히 입고 학교에를 다니겠어요 // 망나니들의 망동이 아무리 심하여도 / 민족의 슬기가 깃든 / 우리의 치마저고리 입고서 / 바람처럼 달리며 학교에를 가겠어요 (서화호「우리의 치마저고리」1-3연)[23]

뽀얀 안개 서리는 이른 아침 / 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홈에 / 영희야, 오늘도 너는 혼자 서 있구나 / 달려오는 첫 렬차를 기다리며 // 저고리의 하얀 동정은 / 아침해살보다 눈부시구나 / 머리의 빨간 리봉은 / 역구내에 피여난 / 다리아꽃보다도 더 곱구나 // 곁에 있는 일본학교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도 / 두 시간반을 전차 타고 / 우리 학교 교문을 찾는 영희야 // 찬바람도 불겠지 / 눈비도 오겠지 / 하루도 아는 세월 / 남들은 아직도 / 새벽잠 들었는데 // 그래도 네 발걸음 / 오늘도 떳떳이 우리 학교로 향하는 것은 / 그 작은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 조선학생된 영예냐 / 민족의 긍지냐 // 이 아침도 문밖에까지 나와 / 점심꾸레미를 쥐여주며 / 바래주는 어머니 / 내 뒤모습 바라보는 두눈에 / 때로 눈물도 어리지만 / 그 눈물 속에 숨은 / 애국의 뜻이냐 // 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홈에 / 달려오는 첫렬차를 기다리며 / 말없이 서있는 영희야 / 너는 한떨기 조선의 꽃 / 찬바람 칼바람에도 끄덕 않고 / 조국하늘 우러러 피여난 / 이역의 해바라기 (김정수「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에」1-7연)[24]

조선어는, 공식적 공간에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용자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노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상은 다르다. 조선학교의 여학생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흰 저고리와 곤색 치마는 아무리 먼 곳에서도 그 옷의 착용자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이 말은 치마 저고리라는 복색이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일본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공표하고 다닌다는 자세의 상징이 된다는 말이다. 또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하여 당대까지 지속되어 온 재일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현대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내외적으로 공표하고 다닌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 복색의 고수는 재일 조선인들이 역사적·문화적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새 세대들의 시대감각에 비춰볼 때 내심 저항도 예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적인 폭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전통 복색을 자녀들의 교복으로서 고수하는 의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적인 민족교육의 현실을 보여주

23) 위의 책, pp.172.
24) 위의 책, p.15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고적인 방식을 채택하면서까지 민족 정체성을 자신과 일본 속에 각인하려 노력하는 재일 조선인사회의 의지의 처절함, 그리고 이 지점에까지 조선인들을 내몰고 있었던 일본의 차별적 압력의 역사를 이 배후에서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공표하고 조선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조선음식과 의상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은 본국인에게는 공기를 마시는 것과도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재일 조선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불구적인 존재에서 정상적인 존재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주·객관적 시련이 요구되는 집단적 통과제의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통과제의를 개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긴 고통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수많은 재일 한국인 문학들의 존재와 비교해 볼 때, 총련 문학이 갖고 있는 개성과 그 특성은 매우 뚜렷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재일 문화가 거대한 동화의 조류 속에 휘말려 갈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 오늘이긴 하나,[25] 재일 조선인 사회와 문학은 이 통과제의를 가장 씩씩하고 정면적인 차원에서 돌파해간 경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피안으로서의 조국과 혁명 대상으로서의 조국

재일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자의식에 두고 있다는 점은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국에서 차별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본국의 국민임에 틀림이 없다는 이 국적 차원의 정체성은 사실상 재일 조선인의 자기 정체성을 밑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이 이들은 조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을 소지하고 있었는가, 또한 그것은 시문학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25) 윤건차, 앞의 글, pp.311~312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재일 조선인의 '조국의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령 이들의 시 속에서는 국적의 소유 여부를 넘어서 남북한 전체를 긍정적 시야에 넣는 조국의식 역시도 발견된다. 그러나 대개 그런 시들은 비정치적 차원에 관심을 집중한 시들, 즉 문화적인 동질성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나 남한에 혈육을 두고 있는 이들의 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가) 밥상에 마주앉아 숟가락을 드니 / 어느새에 배웠는가 어머니의 된장맛 /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깊어져 / 눈앞은 흐려지고 코등은 저려오네 // 은근한 안해의 눈길 <어때요 맛은?> / 실눈으로 대답했네 <세상에 더는 없어> / 말없는 대화속에 그릇은 비여가고 …[중략]… 흰 이를 반짝이며 안해가 하는 말 / <통일맛이 어때요, 별맛이지요> // <통일맛이라니 무슨 말이요?> / 그 말에 비밀이나 속삭이듯이 / <북반부의 명태와 남반부의 풋고추가 / 그 속에 들었어요, <통일>이 들었어요> // 선물로 받았다는 명태와 풋고추 / 북에 간 형님 생각 한숟가락 / 남에 계실 삼촌 생각 또 한숟가락 / 눈물인지 땀인지 훔치며 맛보네 (로진용「된장국」2,4,5,6연)[26]

나) 형과 동생 / 오붓이 나란히 선 사진이여 / 반세기가 지나도록 / 혈육들 헤여져 살아야 하는 / 아, 우리 민족의 슬픔이 찍힌 사진이여 // 보풀이 일고 노래진 / 지난날의 사진을 / 동생은, 내 아버지는 뚫어지게 보시는데 // 사진속의 그 형 / 나의 큰아버지시여 / 남들은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 하니 / 꼭 오고야말 상봉의 그날에는 / 그날에는 이 조카도 곧 알아보시리 (손지원,「사진」8-9연)[27]

가) 작품은 남북한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먹는 일상생활적 모티브를 통해서 통일에의 염원을, 나) 작품은 가족사진을 통해서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혈육들간의 상봉 욕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두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혈육간의 상봉 욕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작품들은 보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차원의 정서를 표면에 내세우고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매우 은근한 형태로 제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26)『종합시집 봄빛속에서』, pp.171~172.
27) 위의 책, p.19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러나 역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남북한 문제를 다룰 때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경향이 아니다. 정치 경제적 사안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상황을 극단적인 대극의식 아래 그리는 경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자신의 국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은 이상화된 시각 일변도로 그리는 반면에 남한은 비판적인 시각 일변도로 그리는 경향이 그것이다. 우선 재일 조선인 시 속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조국(북한) 방문 체험'을 다룬 작품 중 한 편을 보기로 한다.

> 푸른 수양버들이 / 실가지를 드리운 뻐스정류소 / 달려온 뻐스는 오르는 손님보다 / 아직 못온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네 // 차창가에서 / 어머니품에 안겨 웃고있는 / 저 어린 아이는 / 나를 반겨 웃는 듯 // 머리 희슥한 로인도 / 젊은이도 / 이 아침 또 하나의 기쁨을 안았는가 / 얼굴들이 환하네 // 아, 조국 땅 평양의 아침은 / 떠나온 이국땅과 판이하게 다르구나 / 내가 사는 고장의 / 밀치고 덮치는 사람들 / 사정없이 닫아버리는 문…// 성난 얼굴 / 퍼붓는 욕설 / 우는 아이 울음 싣고 / 달려가는 전차와 뻐스 / 그 가슴들에 꿈이 있으랴 // 내 지금 바라보는 / 차창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 저 아이야 어떻게 알수 있으랴 / 평양의 이 아침 / 내 갈 길도 잊고 / 한참 선채로 지켜보는 / 저 환한 얼굴들이야 어떻게 알수 있으랴 // 조국의 / 어디 가더라도 듣는 이야기 / 어디 가더라도 보는것이나마 / 이국땅에서 온 나에게는 새롭구나 // 또 하루 조국에서 맞고 / 조국에서 보내는 이 아침 / 나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구나 / 길가를 거저 지나가는 / 저 하나의 뻐스에도 / 격동을 실었구나 // 한없이 따사롭고 화목한 / 나의 조국, 어버이 수령님의 품 / 오고 또 가는 뻐스에서도 / 나는 보았네, 조국을 보았네 (한룡무「평양의 아침」전문)[28]

조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입국하여 일박을 하고 난 다음날의 평양시가 풍경을 그린 작품들 중의 하나다. 화자는 아침의 시가에서 조우한 시민들과 거리 풍정 속에서 '밝음'과 '기쁨' '따사롭고 화목'함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끽하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서적 기반은 재일인이 오래 동경해 온 조국의 현실 - '이상적인 사회주의체제' - 을 직접 목도한 데 대한 기쁨이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 거주해 왔으며 또 그렇게 될 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이미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한 마디로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구심인 조국의 이상적 면

28) 위의 책, pp.65~6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모를 당사자가 직접 목도한 결과 발생한 서정적 감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북한의 건설 작업의 성과에 대해 언급한 작품들 중의 하나다.

> 바람이 분다 / 바람이 분다 / 날바다 한복판에 / 바람이 분다 // 바람이 분다 / 바람이 분다 / 바다바람 일던 곳에 / 벼바람이 인다 // 바라보면 앞에는 망망한 갑문호수 / 돌아서면 뒤에는 창창한 바다 / 갈매기 울던 곳에 / 풍년새 노래하는가 // 아, 상상이나 하였으랴 / 바다물이 담수로 변할줄이야 / 날바다 20리에 / 벼바람이 불줄이야 // 태여난 호수도 기쁨에 겨워 / 은물결 일으키며 춤을 추누나 / 그날의 수령님을 노래하며 / 그 날의 우리 당을 노래하며 // 네가 나를 불렀느냐 / 내가 너를 찾았느냐 / 노래하자 반가와라 / 물풍년, 쌀풍년아 // 저기 서해의 굽이굽이 / 천리 간석지에 / 가없이 파도치는 / 황금물결이 보이누나 // 오, 바람이 분다 / 날바다 한복판 20리 언제우에 / 사랑의 바람이 분다 / 벼바람이 분다 (1980년대작)
>
> (정화흠, 「날바다 한복판에 벼바람 분다」 전문)[29]

'사회주의 체제 완성'의 길을 지향해 가는 북한 사회의 면모를 이런 관점에서 포착한 작품들은 북한 문학사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다. 세계 자본주의의 선두 국가인 일본에서라면 이런 일은 시의 소재조차도 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공간 속에서 거주해 온 재일 조선인이 북한의 사회 건설의 성과를 이렇게 예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현상이 재일 조선인들이 조국에 대해 바라는 강력한 소망태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회주의 조국'은 자신들의 정신적 구심일 뿐만 아니라, 물적 차원에서도 자본주의국가 못지 않게 그 완성을 향해 힘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확인·공표하고 싶은 동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위의 두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은 사실상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 표현된 조국(북한)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이 이상으로는 더 조국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 작품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 존재하는 조국(북한)시들은 대개 위와 같은 '방문객' 내지 '참배단'적인 찬양이나 감격으로 일관되어 있지, '조

29) 『재일조선시선집』, pp.172~17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국'의 삶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 사실적인 탐구는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해외조직인 총련의 문학을 대변하는 문학이라는 점, 그리고 총련의 문예정책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복무하는 문학인 것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조국의 노래'에 제시되어 있는 조국상은 재일 조선인의 마음 속에 소망적 형태로 간직되어 있는 조국상 내지 당위태로서의 조국상이지,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한 삶의 개별적인 문제들이 득실거리는 리얼한 조국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동의 조국시는, 앞장에서 본 '민족교육 시'들과 같이 주목을 모으기에 합당한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그 예다.

> 그러더라 / 조국만리 떨어진 이국의 거리 / 우리 허리펴고 노래하며 / 희망으로 삶은 / 통성없이도 두팔벌려 안아주는 / 그리운 집 - 조국이 있어서가 아닌가 // 조국은 진정 / 그리운 집 /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집 / 언젠가는 돌아가 안길 / 무궁한 미래인 우리의 집 // 아, 고마워라 / 은혜로워라 / 조국은 우리의 삶 / 조국은 우리의 집 (1985.9) (정화흠 「우리집」 5-7연)[30]

> 푸르른 수평선 / 저 멀리 파도너머 / 조국이 보인다 // 조국은 / 내가 부르던 나의 조국은 / 멀리에 있었던가 / 가까이에 있었던가 // 나에게 조국은 / 아버지 사투리 섞인 우리 말 / 어머니 입으시던 치마저고리 / 그것은 정다운 조국이 아니였던가 // 봉선화 피는 뜨락 / 구수한 된장국냄새 / 흐느러진 노들강변 춤가락 / 나에겐 그것도 조국이였다 // 그렇다. 조국은 / 이국의 하늘가에 자랑높이 날리는 / 오각별 빛나는 우리의 기발 / 창문을 흔들며 들려오는 / 만경봉호 배고동소리 // 그때문이 아닌가 / 조국은 그리도 내마음속에 / 가까이 있는 것은 / 밤마다 밤마다 베개의 머리맡에서 / 주름진 이 뺨을 쓰다듬으며 / 내 운명을 지켜준 것은 // 아, 조국은 찾아오는 이 아들을 / 두팔 벌려 마중오누나 / 이역에 거친 백발을 그 품에 묻으며 / 내 첫소리 // 아, 어머니! (1999.7) (정화흠 「조국을 바라보며」 전문)[31]

화자에게 조국은 재일의 고통을 상징하는 용어인 '통성'이 필요하지 않는 공간이며, 재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공간이며, 부모와 혈육의 공간, 화자에게

30) 정화흠, 『민들레꽃』(종소리시인회, 2000.8) pp.6~7.
31) 위의 책, p.114.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내재되어 있는 조선 문화의 원향(原鄕)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또한 그것인 개인사적 차원에서 자신의 '운명을 지켜준' '어머니'이기도 하며, 언젠가는 '돌아가 안길' 회귀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조국의식은 하나의 정치경제적 자립공간인 국가를 넘어서서, 한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이상의 최고 형태, 혹은 존재의 근원, 혹은 그 원형적 상징의 차원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조국'은 남한의 현대문학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상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개인의 운명까지도 수호하는 자비로운 모성적 힘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원이자 죽음과 더불어 귀환하게 될 일종의 천상적 회귀의 공간으로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스러운 '피안'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권의 감각에서 본다면, 이런 심리적 공간은 거의 종교적 이상의 차원에까지 접근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재일 조선인들의 정서 속에 자리하고 있는 '조국' 이미지 속에는 이러한 세계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을 이렇게까지 그리는 시인의 이면 심리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상 재일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복합적 욕구의 대상이다. 그곳은 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갈 수 없는 양가적 욕구의 대상이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재일인들에게 영원한 이국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실제로 떠날 수는 없는 현실적 삶의 근거지다. 그러므로 재일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재일'의 결핍의식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공간이며, 조국은 그것과 대극적인 지점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곳은 지속적인 결핍의 감각 속에 살고 있는 재일의 상상력 '저 편'에 존재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순수한 공간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은 재일의 한(恨) 내지 결여를 마땅히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이상적 공간이며, 때로는 위의 작품처럼 위대한 모성적 공간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어야 하는 공간, 현실감각이 개입되지 않은 채 순수한 이상의 공간으로서, 즉 피안에 대한 '재일'의 동경적 형태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비지상적 공간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재일이 그리는 '조국'의 실제 모습이 문자 그대로 이상적 공간일 리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더구나 이 작품들이 나온 시기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일본의 지성계 - 전통적으로 친북한적인 자세를 취해 온 - 와 재일사회 속에 퍼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32] 그런 의미에서 위와 같은 조국 시들은 조국의 객관적 실상과는 거리가 먼 세계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문예동의 문예정책이 갖고 있는 모종의 경직성의 표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시들이 주목되는 것은, 조국에 대한 이러한 피안적 동경의 세계가 하나의 생생한 심리적 실재로서 재일 조선인 문학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것은 남북한의 문학, 즉 본국의 문학 속에서는 목도되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재일 조선인 문학이 재일인들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특수성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위의 작품들에 비해 볼 때, 남한을 그린 시들은 상대적으로 '리얼'한 경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시들이 북한의 대 남한관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민중사적 관점에서 남한의 정치경제사의 제 단계들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면모들을 보이고 있다. 이 부류의 작품들 중에서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남한 정치경제사에 관심을 표명한 작품들을 보기로 한다.

> 가) 분화처럼 터져오르는 목소리 / 썩어 넘어지는 역적의 무리 불사르고 / 제땅인양 활개치는 미국놈을 쫓아내고 / 찾자, 평화와 통일을, 자유와 민주를 / 휘날리게 하자, 공화국의 기발을! // 불타는 남녘의 하늘밑에 / 오늘은 전세계 이목을 걷어쥐며 / 천추의 원한을 풀어놓으며 / 원쑤를 심판하나니, 파멸을 선고하나니 // 피 흐르거든 일어서라 / 시인이여, 항쟁의 기수로! // 그대 만약 비겁한 <<방관자>> 아니라면 / 싸움의 대렬에 나서라 / 밝아오는 려명을 소리높이 노래하라! (1960) (남시우 「남녘땅 시인이여!」 12-15연)[33]

---

32) 1990년대 초반부터는 북한의 개인숭배주의나 경제 상황의 악화, 귀국자들의 생활상 등이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재일사회 속에서 총련이 차지하고 있던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한다. 金贊汀, 『在日コリアン百年史』(三五館, 1997), p.234 참조.

33) 남시우, 『조국에 드리는 송가』(문예출판사, 1982) pp.197~19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 말못하는 땅에서 / 녀인들은 검은 테프로 / 입을 막고 / 말없이 앉았다 // 하고픈 말은 사무쳤건만 / 입을 가지고 무엇하리 / 민주를 부르다 묶이운 / 남편을 살리자고 / 마음을 삭이며 / 독재의 사슬을 원망했건만 / 입을 가지고 무엇하리(1970년대 작) (한룡무 「검은 테프」 1-2연)[34]

다) 철이야! /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 너의 또래들은 / 어깨동무 나란히 / <세상에 부럼없어라> 높이 부르며 / 아버지원수님의 초상화 모신 / 해빛 밝은 교실에서 /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 교과서까지 거저 받으며 / 마음껏 배우는데 // 너는 제 고장에 살면서도 / <육성회비> 못물어 / 학교로 오가는 먼지 이는 길우에 / 노래 대신 굵은 피눈물 떨어뜨리며 / 주린 배를 그러안고 /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구나(1970년대 작) (김광숙 「철이야!」 3-4연)[35]

라) 무등산 마루에 타오르고 / 영산강 물우에 타오른 그 불길 // 금남로, 충장로, / 산수동, 지산동, 계림동 / 격분한 길목우에 타오른 그 불길 // 대검에 찔리고 / 차에 깔리고 / 방망이에 얻어맞은 / 형제들의 가슴팍에 타오른 그 불길이 /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계속 타오르는 / 광주는 새날을 부르는 기발 // 젖가슴을 잘리운 녀학생의 시체우에 타오른 그 불길 / 배를 찔린 임신부의 비명우에 / 태아의 소리없는 울음우에 타오른 그 불길 // … // 광주는 반미의 불꿰침으로 / 우리 심장을 두드리는 / 불사조의 성새 / 광주는 자주만이 살길임을 천하에 밝혀주는 우리 기발 // 이 시각 / 이 가슴에도 활활 타오르는 / 반미구국의 거센 투지 (1982.12) (김학렬, 「광주는 우리의 분노의 도시」 1-4, 14-15연)[36]

가) 작품은 4.19혁명과 5.16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작품들 중의 하나다. 이 속에는 문예동의 대 남한관이 표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남한은 미제국주의와 매판독재정권의 지배하에 존재하는 식민지 국가이자 계급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지식인들은 혁명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남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공화국의 깃발이 남한에서 날리게 되는 북한식 통일에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다) 작품은 이른바 '개발독재'시대라 불리고 있는 1970년대 남한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의 일부다. 군사정권 수립과 더불어 벽에 부딪힌 민주화

34) 『재일조선시선집』, p.151.
35) 위의 책, p.154.
36) 김학렬, 『아, 조국은』(문예출판사, 1990) p.11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투쟁의 문제, 산업사회로의 진입기에 남한 사회가 겪어야 했던 급격한 사회변동의 문제가 '프로계급' 소년의 생활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작품은 1980년대 남한 정치·문화사의 최대 화두였던 광주민주화 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의 하나다. 후반부의 '자주' 관련 모티브만을 제외한다면, 1980년대 한국시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광주의 형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가)와 나), 다) 작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북한의 대남 정책을 직접적으로 표방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볼 때, 이 작품들이 동시대의 남한 시문학의 한 경향과 유사한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을 다루는 경우와는 달리,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남한을 다룰 경우 비교적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본다면,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 표현된 남한 이미지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남한의 사회체제나 이를 이끌어 가는 지배 엘리트 계급,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형상은 매우 부정적이다. 남한의 사회체제나 지배 계급은 민중 봉기를 통해 전복되어야 하며 미국은 축출대상으로 그려진다. 거기에는 북한 및 재일 사회의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남한의 민중과 양심적 지식인들은 연민의 대상 혹은 격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남한의 민중이나 양심적 지식인은 자본주의 체제나 매판독재정권, 미제국주의의 희생물인 동시에 그 현실을 전복해야 할 '혁명'의 주체이며, 나아가서는 재일 지식인들과의 정치적 연합이 예상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남북한 현실에 접근할 때 이질적인 잣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주의 조국' 북한을 대할 때에는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예외없이 추상적이고도 주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사회가 재일 조선인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 '사회주의 낙원'으로서, 또한 '은혜로운 조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일 것이며, 그 역사적 의미는 재일 조선인들에게 실감의 차원에서 매우 큰 것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과 총련 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회의 내부,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재일 조선인 문학 속에는 이런 방면의 '현실'에 대한 접근 자세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을 다룰 때 재일 조선인 문학이 보여준 이러한 추상적·주관적 방법은, 남한을 대할 때에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반대의 극점으로 탈바꿈한다. 남한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는 북한의 대남관을 그 이면에 내포한 채로, 민중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으로 남한 정치 경제사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물론 재일 조선인 문학이 '조직 문학', 즉 태생적으로 북한 문예정책의 재일 운용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갖고 있는 조국 이미지 속에는, 예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역시 본국의 분단구조에서 파생된 현실인식의 태도가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것은 거주지 국가의 정치경제적 양상이나 그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외 한국인 문학 역시도 본국의 정치·문화가 갖고 있는 핵심적 문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이 재외 한인의 자기 정체성 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6. 결론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조총련의 하부조직인 문예동 소속 시인들에 의해 순수한 조선어로 창작되고 소비되어 온 문학 현상 중의 하나다. 이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그 자기 정체성의 측면에서 일본어로 씌어진 재일 한국인 문학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재일 한국인 문학이 자기 정체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개인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긴 고통과 갈등의 여정을 보여주는 데 반해,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집단적이면서도 확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우선 재일 조선인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국(북한)의 해외공민이라는 자의식을 강하게 갖고 일본 사회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적 차원의 자기 정체성의 구심에는 초월자적 이미지를 가진 군주나 어버이로 인식되는 수령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수령상은 사실상 재일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국적 차원의 자기 정체성의 구심 속에 강력한 정서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교육 문제를 다룬 작품들에서는 자기 정체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된다. 임시적인 생활상의 편리를 위해 일본의 동화교육 체제 안에 순응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주객관적으로 재일 조선인들의 불구화가 촉진될 뿐이라는 점, 재일 조선인은 조선학교에서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당당하게 습득·향유하는 과정, 즉 역사와 문화적 차원의 정체성의 획득을 통해서만 진정한 재일 조선인으로서 성숙해갈 수 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총련계의 조선인 사회는 이 작업을 재일의 수난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해 왔다는 것을 자긍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일 조선인 시문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국 이미지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이들의 국적 국가에 해당하는 북한은 일종의 피안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사회주의 낙원, 혹은 그 체제의 완성을 향해 발전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 재일 조선인 사회의 존재를 떠받치는 은의의 공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면, 북한은 생명의 원천이자 그 회귀점, 혹은 개인의 운명을 수호하는 위대한 모성적 존재 등 종교적 숭고성을 지닌 존재로까지도 인식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반면 남한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미제국주의와 매판독재정권의 지배하에 존재하는 식민지 공간, 민중 혁명에 의해 그 체제가 전복되어야 할 자본주의 공간,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미해방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한편,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준다. 북한 문제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 남한 문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 시각의 차이는 위에 제시한 조국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기능하고 있기도 하며. 동시에 본국의 분단구조에서 기인한 현실인식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재일 조선인 시문학, 재일 한국인 문학, 조총련,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문예동, 자기 정체성, 민족 정체성, 해외공민, 민족교육, 차별, 분단구조, 북한문학, 수령, 사회주의

참고문헌

『조국의 빛발 아래』 재일조선작가시집, 문예총출판사, 1965
『영광의 노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70
『태양을 우러러』, 문예출판사, 1971
『조국하늘 우러러』,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73
『은혜로운 해빛 아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75
김학렬, 『삼지연』, 조선대학교, 1979
『조국은 언제나 마음 속에』, 문예출판사, 1979
정화수,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 문예출판사, 1980
남시우, 『조국에 드리는 송가』, 문예출판사, 1982
김두권, 『조국,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문예출판사, 1985
정화흠, 『념원』,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85
『해와 별 우러러』(재일조선인연합결성30돌기념시집), 재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 1985
김윤호, 『내 고향』, 문예출판사, 1987. 11
『재일조선시선집』,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89.6
김학렬, 『아, 조국은』, 문예출판사, 1990
사에구사 토시카스, 「재일 한국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김정수, 『꿈같은 소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재일녀류3인시집『봄향기』,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윤건차,「21세기를 향한 재일의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출판부, 1999
최영호,「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한반도 국가형성과정에의 참여」, 위의 책.
『문학예술』 109호, 1999.6
총련결성 45돐 기념문학작품집『풍랑을 헤치며』,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정화흠,『민들레꽃』, 종소리시인회, 2000
설성경・김영민・최유찬・양문규・심원섭,『통일 한국문학의 진로와 세계화 방안 연구(Ⅲ)』,『동방학지』 107집, 2000.3
유숙자,『재일한국인 문학 연구』,월인, 2000.6
홍기삼 편,『재일 한국인 문학』, 솔, 2001.12
설성경・김영민・최유찬・양문규・심원섭,『세계 속의 한국문학』, 새미, 2002.1
리처드 미첼(金容權 역),『在日朝鮮人の歷史』, 彩流社, 東京, 1981
스즈키 다이세츠(신현숙 역),『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86
金贊汀,『在日コリアン百年史』, 三五館, 1997
오자와 유사쿠(이충호 역),『재일 조선인 교육의 역사』, 혜안, 199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要約

在日朝鮮人詩文學に現はれた自己正體性の諸樣相

沈 元 燮

在日朝鮮人詩文學は朝總聯の下部組織である文藝同所屬の詩人たちによって純粹な朝鮮語で創作・消費されてきた文學現狀の一つである。この在日朝鮮人詩文學は自己正體性という面で日本語で書かれた在日韓國人文學とは相當に異った樣相を保っている。在日韓國人文學が自己正體性の確保問題と關聯して主に個人史的な次元で接近しながら,長い苦痛と葛藤の旅程を見せているに反して、在日朝鮮人詩文學は集團的で確固なかたちでこの問題にとりくんでいるのを見せている。

まず、在日朝鮮人たちは政治的な面で祖國(北韓)の海外公民である自意識を強くもちながら、日本社會に堂堂に對處しているのを見せ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國籍次元の自己正體性の球心には超越者的心象の持主である君主なり父母として認識される首領像が存在している。この首領像は事實上在日朝鮮人たちがもっている國籍次元の自己正體性の球心の奧に强力な情緖的形態として存在しているものと判斷される。

民族教育の問題を取り扱った作品では自己正体性と關聯してつぎのような面が提示される。臨時の生活上の便利のため日本の同化教育體制に順應していく過程を通うしては主客觀的に在日朝鮮人たちの不具化が促進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在日朝鮮人は朝鮮學校で朝鮮の言語や文化を堂堂に習得・享有する過程、すなわち歷史と文化的次元の正體性の獲得を通うしてたけ眞實な在日朝鮮人として成熟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觀點がそれである。そして總聯系の朝鮮人社會はこの作業を在日の受難史の中で持續的に貫徹してきたというのを自矜の源としているという事を見せている。

在日朝鮮人詩文學の中に含んでいる祖國の心象は二つに分かれる。まず政治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的次元で彼らの國籍國家に該當する北韓は彼岸的空間として提示される。社會主義樂園もしくはその體制の完成をめざして發展していく祖國, 在日朝鮮人社會の存在をもとずいている恩誼の空間等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のがそれである。また、北韓は生命の源泉でありながらその回歸點、もしくは個人の運命を守護する偉大な母性的存在等、宗教的な崇高性までももっている存在としても認識されているのが發見される。それに反して、南韓に對する心象はだいたい美帝國主義と買辦獨裁政權の支配の下に存在する植民地空間、民衆の革命によってその體制がたおれるべき資本主義空間、北韓の主導に統一されるべきの未解放の空間として提示される。

一方、在日朝鮮人詩文學はこの問題に接近する方法の面でも大きな差を見せている。北韓問題の場合には例外なしに抽象的で主觀的な觀點をもって接近する方法を取っているに反して、南韓問題の場合には相對的に客觀的で現實的な視覺で接近する方法を取っている點がそれである。この視覺の差は祖國の心象を決定する主要な要因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同時に本國の分斷構造から派生した現實認識の態度を反映しているものと判斷される。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